

보도자료

이 자료는 7월 12일 (조)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 『노동리뷰』 7월호 - 특집

■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탐색적 고찰(반정호 연구원)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400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근로빈곤가구의 규모는 14.3%로 분석되며 근로빈곤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51만원)은 비빈곤가구(297만원)의 약 17% 수준에 불과한 수준

- 표본가구의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와 유형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소비패턴의 유형(사회적 소비강조, 교육비 소비강조, 차량통신비 소비강조, 건강 및 필수재 소비 강조, 온건균형소비 유형)이 도출됨.

※ 근로빈곤가구의 45.2%는 건강 및 필수재 소비 강조유형으로 나타난 반면, 비빈곤가구의 35.1%는 교육비 소비 강조유형, 33.3%는 차량통신비 소비 강조유형으로 빈곤지위에 따라 소비패턴 유형에 차이가 나타남.

문의처 : 한국노동연구원 반정호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jhban@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에 대한 탐색적 고찰

담 당 자	반정호 연구원
전 화	02)782-0141(교환 289) 02)783-7155

○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를 이용하여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패턴의 구조와 유형을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3,400가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근로빈곤가구의 규모는 14.3%로 분석되며, 근로빈곤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51만원)은 비빈곤가구(297만원)의 약 17% 수준에 불과한 수준

- 근로빈곤가구는 비빈곤가구에 비해 식비와 주거비, 의료비, 대중교통비 등의 필수재 소비항목의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비빈곤가구는 사교육비, 차량유지비, 용돈, 피복비 등의 지출비중이 근로빈곤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표본가구의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와 유형을 분석한 결과, 5가지 소비패턴의 유도출됨.

※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5가지 소비패턴의 유형과 특징(표1 참고)

사회적 소비강조 유형(기부금, 사회보험, 문화외식비 등) : 전체 소비의 33.5% 지출
교육비 소비강조 유형(공교육비, 사교육비) : 전체 소비의 26.9% 지출
차량통신비 소비 강조 유형(차량유지비, 통신비) : 전체 소비의 25.6% 지출
건강 및 필수재 소비 강조 유형(주거비, 보건의료비) : 전체 소비의 27.4% 지출(식비비중 31%)
온건균형 소비 유형 : 특정 소비항목에 치우침이 없는 소비유형

- 빈곤지위별 소비패턴의 유형의 분포를 살펴보면, 근로빈곤가구의 45.2%는 건강 및 필수재 소비강조 유형이 가장 많고 차량통신비 소비강조 유형(17.5%), 교육비 소비강조 유형(17.5%) 순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비빈곤가구의 35.1%는 교육비 소비 강조유형, 33.3%는 차량통신비 소비 강조유형으로 빈곤지위에 따라 소비패턴 유형에 차이가 나타남(표 2 참고).

<표 1> 표본의 소비의 내재적 구조유형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단위 : %)

	사회적소비 강조	교육비소비 강조	차량통신비소비 강조	건강 및 필수재소비 강조	온건균형소비
식 비	17.4	20.2	22.8	30.6	17.9
외식비	3.5	2.7	3.2	1.5	9.0
공교육비	3.5	11.2	1.3	0.7	1.4
사교육비	8.0	15.7	4.1	1.0	3.4
차량유지비	6.7	7.7	15.7	3.7	8.7
주거비	7.8	7.6	9.0	17.3	9.4
경조사비	5.5	2.3	3.6	6.2	3.8
보건의료비	2.1	1.6	2.0	10.1	1.7
문화비	2.2	1.3	1.5	1.7	4.8
내구재	0.8	1.0	0.5	0.6	3.0
통신비	6.2	6.5	9.9	6.5	7.6
용 돈	8.6	11.3	12.7	8.6	15.1
피복비	2.5	2.4	3.0	2.1	5.7
헌금 및 각종기부금	14.4	0.7	0.6	0.8	0.7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7.9	4.6	8.2	3.7	4.8
대중교통비	2.7	2.9	2.2	4.7	3.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표 2> 빈곤의 지위별 소비패턴 유형의 분포

(단위 : %)

	근로빈곤가구	비빈곤가구
사회적 소비 강조	3.5	5.4
교육비 강조	17.5	35.1
차량통신비 강조	19.4	33.3
건강 및 필수재 강조	45.2	9.6
온건균형소비	14.4	16.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2004 원자료.

○ 근로빈곤가구의 45.2%는 건강 및 필수재 소비 강조유형으로 나타나 이들 가구의 소비패턴이 전반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욕구의 변화에 따른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필수재 지배적인 소비패턴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근로빈곤가구의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수준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향후 빈곤정책은 근로빈곤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소득중심의 정책과 함께 소비행위에 있어서의 효용을 높이는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이를 위해 기존의 절대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주거지원과 의료보호 서비스 등의 정책프로그램이 근로빈곤층에게까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됨.